

올 봄에도 '가뭄·미세먼지'

광주기상청 3개월 기상 전망

강수량 평년비 77% 불과

황사 5.2일...당분간 한파 없어

올 봄 광주·전남은 황사가 기승을 부리고, 가뭄도 여전한 것으로 예보됐다. 또 찬 대륙성 고기압이 모두 물러나면서 더 이상 추가 한파는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3일 '2018 봄철 3개월 전망'을 발표하고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3월과 4월에는 기온과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겨울 가뭄을 해결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해 봄 가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 6월 기온은 평년(1981~2010년 평균)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며, 강수량은 다소 적을 것으로 예보돼 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광주·전남의 이번 겨울 강수량은 잦은 폭설에도, 평년 86.2mm 대비 77%(66.8mm)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광주·전남은 특히 이달 들어 평년(27.7mm) 수준에도 못 미치는 최악의 강수량(4.3mm)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겨울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난달 10일 하루 동안 광주에 17.1cm의 눈이 내리는 등 올 1월 들어 광주·전남에

비교적 많은 눈이 내리긴 했지만, 내린 눈이 상대적으로 습기가 적은 건조(乾雪)로 가뭄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또 올 봄(3~5월) 광주·전남의 황사발생 일수를 평년 범위(3.4~7.3일)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했다. 올 봄 황사의 특징은 황사발원지 알려진 내몽골 및 중국 북동부 지역이 눈에 덮여 있는 덕분에 봄 초반에는 다소 주춤했으며, 후반부터 평년 수준인 5.2일을 수준으로 예상했다.

기상청은 이 밖에도 여름철 기후전망을 통해 올 여름 광주·전남은 여름 초반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낮과 밤의 기온 편차가 커지는 등 평년(23.3~23.9도) 비슷한 것으로 내다봤다. 또 후반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년기온 넘어 지난해보다 더 더운 날이 많을 것으로 예보했다.

지난해 광주는 6월(5일), 7월(13일), 8월(10일) 등 총 29일간 33도가 넘는 폭염을 기록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최근 찬 대륙성 고기압이 모두 지나감에 따라 광주·전남에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하지만 28일 이후 한 차례 정도 대륙 고기압이 확장해 짝 추위가 찾아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27일까지 광주·전남의 미세먼지를 '좋음' 단계로 예보했지만 대기정체 인해 다소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추웠던 겨울 탓 봄꽃 10일 늦게 핀다

지리산 산수유·매화 내달 중순 꽃망울...월출산 동백 4월 중순 만개

올 겨울 한파 영향으로 올 봄에는 무등산 등 전국 국립공원 내 봄꽃 개화시기가 10여일 이상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번 겨울에는 곡성 지역 영하 15.6도까지 떨어지는 등 광주·전남지역에도 한파가 맹위를 떨쳤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봄꽃 개화소식과 함께 국립공원별 개화시기, 장소 등 봄철 국립공원 탐방정보를 25일 내놨다.

공단은 올해는 한파가 지속된 탓에 봄꽃 개화가 지난해보다 다소 늦을 것으로 분석했다. 본격적인 개화시기는 다음달 5일(경칩) 이후로 보고 있다.

무등산은 지난 19일 약사사, 만연산지구에서 북

수초 개화가 확인됐으며, 산수유(갓고개~몽문지)는 다음달 중순, 생강나무(동적골~마집봉)는 다음달 하순에 개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지리산에서는 3월 중순 산수유·매화(쌍계사 일대), 얼레지(유평마을), 동백나무(무위사 일대)가 꽃을 필 것으로 예상했다. 장성 내장산 백양사의 고분매는 3월 중순 꽃망울을 터트리고, 변산바람꽃(금선계곡 일대), 갯버들(임암산) 등은 다음달 초 절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월출산은 3월 중순 동백나무가 개화해 4월 중순 온 산을 붉은빛으로 물들일 것으로 예측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경실련 임원의 갑질

본인업체 자재 안냈더니 시정서 욕설...경실련, 해당 간부 자격정지

광주 한 시민단체 임원이 광주시청에서 본인 업체의 자재를 사용하지 않자며 난동을 피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시청 회계과에서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공감사위원장 A씨가 계약담당 직원들에게 30여분간 욕설을 했다.

A씨는 당시 본인이 지사장으로 있는 부산업체 보도블록 제품을 광주시가 관공 자재로 선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했다.

특히 A씨는 청원경찰이 출동해 제지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경실련 공공감사위원장이라고 밝히고, 윤

장현 광주시장과 통화까지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행정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며 시청 직원들에게 경실련 간부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측은 해당 임원에 대해 자격정지를 조치하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시민단체 임원으로 위치를 망각한 일탈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광주시민들에게 같이 사과드린다"며 "해당 임원에 대한 자진사퇴를 수용해 자격정지했으며 경실련 규칙에 따라 중앙 조직위원회 진상소사를 통해 징계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이제 사회인이다" 호남대학교 2017학년도 학위수여식이 지난 23일 호남대 문화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박사 29명, 석사 159명, 학사 1424명 등 모두 1612명이 학위를 받았다. 졸업생들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 학사모를 하늘로 날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전남 태권도협회 '통합 내홍' 확산

단체간 주도권 싸움...북부경찰, 수역원대 협회비 횡령 수사

통합 갈등을 빚고 있는 전남태권도협회 관계자들이 수역원대의 협회비를 횡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광주북부경찰 등에 따르면 전남태권도협회 측 간부 3명이 협회비 2억원을 횡령하고,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고소장이 최근 접수됐다. 경찰은 고소장에 적힌 인물들을 차례로 불러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역 체육계에서는 이번 고소 사건이 통합 진통을 겪고 있는 전남지역 태권도단체간 주도권 싸움으로 불거졌다는 의견이 많다. 이번 고소는 전남태권도연합회측에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태권도협회(엘리트 분야)와 전남태권도연합회(생활 체육분야)는 적립된 승단 심사비 수익

원 등을 놓고 양 단체간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등 내부적인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정부에서 지난 2016년 3월 엘리트 체육을 담당하는 대한체육회와 생활 체육을 담당하는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하도록 했으나, 전남(도체육회 소속 단체)에서 유일하게 통합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체육회는 지난 1월 양 단체를 결격단체로 지정하고, 정회원 단체로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태권도협회 통합 갈등에 따른 지역 태권도 선수 지원·육성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

오늘의 날씨

해출 07:06 달출 14:17
해진 18:25 달진 03:49

봄이 오려나 봄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	-2/14	보성	맑음	-4/12
북포	맑음	-2/9	순천	맑음	-1/13
여수	맑음	2/12	영광	맑음	-5/9
나주	맑음	-5/13	진도	맑음	0/8
완도	맑음	0/13	전주	맑음	-3/12
구례	맑음	-5/13	군산	맑음	-4/9
강진	맑음	-3/14	남원	맑음	-5/13
해남	맑음	-4/12	홍산도	맑음	2/7
장성	맑음	-5/13			

◇바다 날씨

서해 남부	앞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
	면바다	북~북동	0.5~1.5	남동~남	0.5~1.0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	북~북동	0.5
	면바다(동)	북서~북	0.5~1.5	북~북동	0.5~1.0
	면바다(서)	북서~북	1.0~2.0	북동~동	1.0~1.5

◇물때

목포	간조		만조	
	시각	수위	시각	수위
여수	03:32	10:59	16:47	23:10
	12:38	06:21	18:39	

◇주간 날씨

27(화)	28(수)	3/1(목)	2(금)	3(토)	4(일)	5(월)
0/15	5/10	0/8	-2/11	3/12	4/11	4/10

◇생활지수

- ☀️ 높음
- ☁️ 높음
- ☔ 보통
- ☁️ 미세먼지

본 상품은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협력기업인 (주)아침가리, (주)아라움, 살롬산업(주), (주)벌고꼬막이 전남의 싱싱한 수산물로 만든 최고품질의 수산가공 베스트 상품입니다.

(주)아침가리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모사길 62 Tel. 061)542-8933

뷰음용멸치 250g **6,100 원**

국물용멸치 200g **4,000 원**

뷰음용멸치 500g x3 **33,000 원**

뷰음조림용멸치 500g x3 **33,000 원**

진미역 250g **3,800 원**

해산물세트 **17,000 원**

(주)벌고꼬막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함암길 185-05 Tel. 061)745-9907

꼬막볶음고추장 **5,850 원**

왕꼬막통조림 간장 **2,250 원**

꼬막통조림 소금 **2,700 원**

꼬막통조림 간장 **2,700 원**

살롬산업(주)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어시물길 10 Tel. 1577-8885

히팅록 소고기맛 **4,500 원**

제품 설명

- 발명체가 내장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나 별도의 가열장치 없이 조리 가능합니다.
- 물을 붓고 졸을 끓여당기면 15분 후 드실 수 있습니다.
- 아웃도어를 즐기시는 고객들이 많이 찾는 제품입니다.

히팅록 치킨카레맛 **4,500 원**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와 전남 대표수산물기업 (주)아라움, 살롬산업(주), 무안 구로어촌계, 여수 안포어촌계, 해남 송호어촌계와 함께 조만간 전남 대표 수산가공상품을 출시합니다.

(주)아라움 대표 김미선

살롬산업(주) 대표 김경애

여수안포어촌계 계장 이희한

무안구로어촌계 계장 정경태

해남송호어촌계 계장 홍양배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전남대표수산물기업 (주)아침가리, 여수 안포어촌계, 해남 송호어촌계가 전국 최초로 전복 분말, 피조개 분말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전복·조개분말세트 **43,000 원**

전복분말(개당) **15,000 원**

조개분말(개당) **7,000 원**

구매문의

(주)아침가리 061)542-8933

(주)벌고꼬막 061)745-9907

살롬산업(주) 1577-8885

5만원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JEONNAM FISHING VILLAGE SPECIALIZED SUPPORT CENTER

광주광역시 동구 광남로 238 무등빌딩 16층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T. (062) 220-0514 F. (062) 222-8005
홈페이지 : www.jnbada.or.kr